



새만금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 도약 '가속도'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 현장 방문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위한 추진 상황 확인·협력 강화

김 총리 “규제 개선해 국민 성과 체감하는 새만금 조성”

김관영 도지사, 글로벌 메가 특구 지정 등 핵심 현안 건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3일 오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4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김민석 총리를 만나 건의했던 글로벌 메가 특구 지정과 새만금 SOC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건의 사항을 확인하며 정책 검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진행 상황과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단지를 방문해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태양광을 비롯해 이차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새만금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들을 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가장 먼저 건의된 내용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메가 특구(메가 샌드박스) 지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광역 단위 포괄 규제 특례를 담은 메가 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첨단 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제로베이스 지대’를 조성하고, SOC 인프라, 인력 양성, R&D 지원, 세제 감면, 전력 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 특구 1호 산업으로 ‘헬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제시하며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두 번째 핵심 건의 사항은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였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 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된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부 3축 도로, 환경 생태 용지 2·2단계, 내부 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

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새만금 신항의 접안시설과 배후 부지를 타 항만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인한 지연 우려에 대해 연내 착공을 위한 신속한 협의 마무리를 요청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지원과 무인 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도 건의하며,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현안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총리 방문 후 “이번 총리 방문은 지난 8월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자리”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민석 총리의 새만금 방문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서의 도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우리동네 살리기’

4년 연속 공모 선정

완주 이서·고창 교촌 등

도내 2곳 국비 90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완주 이서지구와 고창 교촌지구가 7월 선정돼,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전북은 2022년 부안, 2023년 정읍·남원, 2024년 김제에 이어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공공시설 조성 및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완주군 이서지구는 ‘어른과 아이가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오목마을’을 주제로 총사업비 102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 통학로 보행 안전 개선, 어르신·이동 통합 돌봄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고창군 교촌지구는 ‘오래된 미래 교촌마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총사업비 97억원(국비 40억원)을 들여 집수리 지원, 골목길 및 경사로 정비, 소공원·주민쉼터 조성 등을 진행한다. 특히 주민 맞춤형 운동·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새봄누리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현초부터 시·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 현장조사, 주민 설문조사,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했다. 또한 국토부 평가 단계까지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철저히 대비한 결과, 신청한 2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관영 지사는 “여전히 도내 구도심의 쇠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무인이동체 산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12월까지 5개월간…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 구축·UAM 연계사업 등 포함

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도지사가 새만금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기반도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

에서 글로벌 시장 성장세와 주요 국가·타 시도의 정책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전북의 입지 여건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특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도출될 세부 전략에는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 구축 △해양·농업 분야 특화 실증단지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연계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비 확보, 지역 기업 참여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전북의 강점 산업인 농생명·해양·소재·이차전지 분야와 무인이동체 기술을 융합해 전북형 특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무인이동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무인이동체 산업은 교통·물류·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북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